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꽃피는 공화국

공화국에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22가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어느 종목이나 그러하지만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서 참관자들의 이목을 특별히 집중시킨것은 바줄당기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민족체육경기종목들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과 추석을 비롯한 민족명절들에 마을별로 바줄당기경기기를 하곤 하였는데 그 광경이 분만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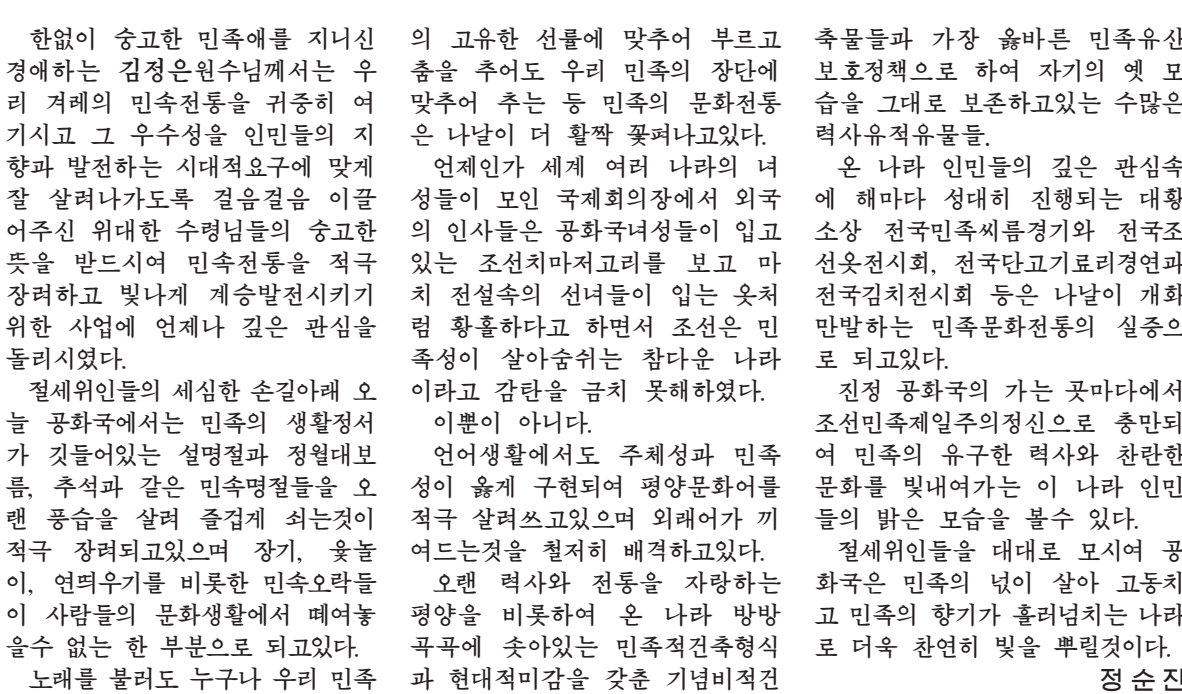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서도 열기던 웅원속에 바줄당기경기기에 참가한 각 도의 선수들은 높은 집단주의정신과 강인한 의지, 완강한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기술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한글수 자강도 립업관리국 부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 바줄당기경기를 진행 하였습니다.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바줄당기경기기가상 없습니다. 우리 자강도 립업관리국에서는 민족의 넘고 기상이 어린 바줄당기기와 씨름을 적극 장려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줄당기기만이라고 하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창조된 우수한 민족문화와 민족전통들은 오늘 공화국에서 날이 활짝 꽃피고있다.

그 어둠 가나 민족의 향취가 한껏 넘쳐나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스런 현실은 민족의 우수성과 우수성, 고유한 생활세계가 반영된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예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겨레의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우수성을 인민들의 지향과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잘 살려나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민족전통을 적극 장려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세심한 손길아래 오늘 공화국에서는 민족의 생활정서가 깃들여있는 실명절과 정월대보름, 추석과 같은 민족명절들을 오랜 풍습을 살려 즐겁게 쇠는것이 적극 장려되고있으며 장기, 옷놀이, 연뽕우기를 비롯한 민족오락들이 사람들의 문화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 노래를 불러도 누구나 우리 민족

의 고유한 선물에 맞추어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추는 등 민족의 문화전통은 나날이 더 활짝 꽃피고있다. 언제나가 세계 여러 나라의 녀성들이 모인 국제회의장에서 외국 인사들은 공화국녀성들이 입고있는 조선치마저고리를 보고 마치 전설속의 선녀들이 입은 옷처럼 황홀하다고 하면서 조선은 민족정신이 살아숨쉬는 참다운 나라 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언어생활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이 옹골 구현되어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쓰고있으며 외래어가 끼여드는것을 철저히 배격하고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평양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솟아있는 민족전통축성전과 현대적미감을 갖춘 기념비적전

축물들과 가장 옹바른 민족유산 보호정책으로 하여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수많은 력사유적유물들. 온 나라 인민들의 깊은 관심속에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는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과 전국조선우전대회, 전국단고기리경연과 전국김치전시회 등은 나날이 개화만발하는 민족문화전통의 실증으로 되고있다.

진정 공화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충만하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빛내여가는 이 나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볼수 있다. 절세위인들을 대대로 모시고 공화국은 민족의 넘고 살아 고고되고 민족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정순진

사라져가는 민족의 문화 전통

남조선에서는 70여년 지속되어온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정책으로 하여 우수한 민족성과 문화전통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라져가고있다.

이른바 《다문화사회건설》로 그 무슨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장려되어 혼혈인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양기문화와 섞여버린 부르주아생활양식이 범람하여 사람들이 이색적인 생활풍조에 심히 오염되고있다. 옷차림과 머리단장에서도 고유한 민족의 넘고 사멸되어가고있다.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에서는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이 버림을 받고있으며 보고 듣고 이해할수 없는 외래어, 잡탕말이 범람하고있다.

기관명칭과 공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신문물 비롯한 출판물들은 경성이나 하듯이 영어표현과 한자표현들로 지면을 채우고있다.

남조선의 생활용어 1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탕말이라고 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가 무시당

하고있다. 교원들이 강의할 때 외래어와 잡탕말을 쓰는것이 보통이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우리 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조선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모르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세계화》바람에 휘말려 예술이 잡탕문화로 전락되어가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외국선물을 모방한 혼탁량의 노래가 《민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불려워지는가 하면 절망과 타락을 고취하고 신봉을 자극하는 퇴폐적인 일보와 서방의 노래들이 《대중가요》로 퍼져가고있으며 변태적이고 기형적인 유흥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유혹하는 작품들이 무대를 독점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도시현대화》, 《개발》의 명목밑에 무질서하게 벌려놓은 공사장들에서 수천점의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땅속에 묻혀있는 문화재의 90%정도가 확인되지도 않은채 공사로 중손해없이 사라져버리는 한심한 현형이라고 한다. 서울의 송례문(남대문)이 화재사고로 형체가 없어 사라져버린 사실은 남조선의 문화유적보존실태가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러나 어떤 각종 《전시회》와 《선물》의 명목밑에 귀중한 문화재들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마구 팔리려고있고 각계의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미술작품들도 고유한 민족적색채의 그림은 찾아볼수가 없어 전문가들까지도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추상화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혀를 잘 찜든다.

남조선에 갇힌 외국인이 《우리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남의 땅에 왔는데 남의 것만 들고 갔다. 이곳의 문화예술을 보면 식민지로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조소하것은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을 이처럼 민족문화와 전통의 폐허지대, 언어식민지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다음아닌 매국과 반역을 일삼고있는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의세에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말살하고있는 집권세력의 사대매국적행동을 단죄 규탄하며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도굴이라는 이름의 전차, 석기밭으로 돌진하다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한 내각결정

공화국에서는 하나의 로선과 정책, 하나의 결정을 채택하여도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차리에 놓는 것을 철칙으로 내세우고있다. 평안관계 2계단공사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의 중소규모관계공사와 하천공사를 전군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내각결정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 채택되었다.

주제44(1955)년 6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평안남도일대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원군의 어느 한 논밭에서 이룩한 차를 멈춰세우게 하시었다. 모내기철도 다 지났지만 논

에서는 농민들이 물동으로 물 경을 길다라 조금씩 부어주며 표창모를 심고있었다. 이곳 농민들의 모습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 가시어 물길논밭이 얼마나 먼가, 하루에 몇동이씩이나 길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러시니는 물길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다 헐었는가고 하시며 걱정을 놓치지 못하시었다.

이윽고 차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의 심정은 무거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오전중에 평양에 돌아가셔야 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일정을 바꾸시어 평원군

에서 종산군으로, 원천군으로, 강서군(당시)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철수당들이 내려있는 그 일대의 모내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는 너무 속이 상하시어 표창모 한포기를 손에 들고 차에 오르시었다. 그 표창모가 그날 저녁 내각성원들이 모인 방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들 보라고, 이것이 표창모라고, 동무들도 쌀을 먹고 나도 쌀을 먹는다고, 이 쌀을 농민들이 험하게 생산해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할게 아니겠는가고 갈리신 음성

으로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안고 내각성원들은 자책감을 금치 못하였다.

얼마후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린 내각결정이 채택되었다. 결정에는 평안관계 2계단공사를 벌리며 그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의 중소규모관계공사와 하천공사를 전군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가 명시되어있었다.

협계를 물음 길다라 표창모를 심는 농민들의 정상을 목격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러도 가슴이파하신 그날의 사연을 담고있는 내각결정이었다. 본사기자

크나큰 사람이 담겨진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그저 작은 모래알이라 하고만 하신다. 우리 다 알고있었다. 그 한알한알 모래알에 비긴그이의 천만고생과 고고로!

깊은 밤, 이른새벽에, 무거운 삼복칠곡과 강추위속에 찾으신 건설장동들 그 얼마이며 그 길에서 맞으신 눈과비, 밤새워 보아주신 문건은 그 얼마인지... 그이께서 보아주신 리명거리형성안만 해도 1390여건, 송화거리형성안은 1200여건, 양덕은천문화휴양지형성안은 무려 2000여건이나 지도해주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신심을 다 바쳐 사랑과 정을 기울이오계신다. 그러시고도 그 사랑이 적으신민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 반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원수님이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올 수있고 안으로 위대한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진정이는 어려웠던 《모래알》!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모래알에 대한 말씀에는 그 끝이 없는 인민사랑의 무한대한 세계가 비껴있고 인민들이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내 조국의 밝은 미래가, 공화국인민만이 누리는 크나큰 행복의 무게가 실려있었던것이다. 유현의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새가정

편지를 통해 오가는 뜨거운 성

공화국의 평양교원대학에 《편지소년》로 널리 알려진 한 대학생친구가 있다. 그의 이름은 신성경. 그는 어려서부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공로자와 로력혁신자들, 청년동력대원들, 다수확농장원들에게 고무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편지들을 수많은 보내었다. 소년단시절부터 그가 쓴 편지는 무려 3200여통에 달한다.

신성경은 4살때부터 피아노 독주를 잘한것으로, 5살때부터는 피아노작곡가로 사람들을 놀래웠다. 평범한 교육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며 자라난 그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어제 그분이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성경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몸소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보답할 결심을 안고 그는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달려나가 자기

가 창작한 노래도 불러주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도 넘겨주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한 로력적 위훈을 펼쳐가는 아버지, 어머니들과 오빠, 언니들에게 메일과 같이 편지를 쓰고 노래도 지어 보내주었다. 그의 편지는 단순히 종이 장우의 글줄로만 띄어졌것이 아니었다. 그는 2.8적성청년단원 김유봉청년동력대원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여러 초소들에 나어린 명예대원으로 등태되었다. 이 나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펼쳐처럼, 조카처럼, 친동생처럼 소중히 간직되었다.

그러던 신성경이 12살 나던 해에 난치의 질병에 걸릴줄 어찌 알았으랴. 신성경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신체를 피땀하는 병마로 고통을 겪을 때, 부모들도 손맥을 놓고있을 때 그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고 지켜준것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입원치료가간 신성경이는 자기의 병치료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친혈육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는줄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의 입원실로는 메일과 같이 전국 지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편지와 보약, 약초들을 보내어 왔다. 《신성경아, 힘을 내거라. 우

로 달랐지만 신성경이는 편지의 글줄마다에서 흐르는 고마움과 뜨거운 친혈육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 진정 그 들모두는 친부모였고 친혈육들이었다.

이렇듯 고마운 사람들의 지극한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그는 다시 일어설수 있었고 오늘은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하였다. 오늘도 신성경이는 공로자, 애국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온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덕과정이 꽃피처럼 흐르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서로 오고가는 편지들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가 창작한 노래도 불러주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도 넘겨주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한 로력적 위훈을 펼쳐가는 아버지, 어머니들과 오빠, 언니들에게 메일과 같이 편지를 쓰고 노래도 지어 보내주었다. 그의 편지는 단순히 종이 장우의 글줄로만 띄어졌것이 아니었다. 그는 2.8적성청년단원 김유봉청년동력대원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여러 초소들에 나어린 명예대원으로 등태되었다. 이 나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펼쳐처럼, 조카처럼, 친동생처럼 소중히 간직되었다. 그러던 신성경이 12살 나던 해에 난치의 질병에 걸릴줄 어찌 알았으랴. 신성경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신체를 피땀하는 병마로 고통을 겪을 때, 부모들도 손맥을 놓고있을 때 그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고 지켜준것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입원치료가간 신성경이는 자기의 병치료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친혈육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는줄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의 입원실로는 메일과 같이 전국 지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편지와 보약, 약초들을 보내어 왔다. 《신성경아, 힘을 내거라. 우

로 달랐지만 신성경이는 편지의 글줄마다에서 흐르는 고마움과 뜨거운 친혈육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 진정 그 들모두는 친부모였고 친혈육들이었다. 이렇듯 고마운 사람들의 지극한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그는 다시 일어설수 있었고 오늘은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하였다. 오늘도 신성경이는 공로자, 애국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온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덕과정이 꽃피처럼 흐르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서로 오고가는 편지들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신성경, 힘을 내거라. 우

독자문답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체계의 생활력이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체계의 생활력이 나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공장, 기업소가 건설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평성성리관공업대학, 계룡상사리원동대학을 비롯한 수십개 대학의 원격교육체계가 망라되었다. 수습계 학과에 불과하던 나라의 원격교육은 오늘 수백개의 학과를 가진 교육체제로 확대강화되었다.

전국적인 사회과학부문 원격교육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육강령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작성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해나가고있다. 우리 식의 원격지능수관리체계를 개발하여 나라의 원격교육의 개보화실행에 이바지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기계대학, 평양의학대학, 원산공업대학 등에서는 해당 대학들과 학술적련계를 맺고 원격학술일화

체계운영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 교육과 생산실천을 밀착시킨 우리 식의 원격교육을 받은 사람들속에서 생산활성화와 실비현대학에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안을 50여건이나 창안도입한 락량영애군인수직일용품공장의 영애군기술자, 인쇄물의 정밀 높이는 여러건의 발명, 창고고안용성공시킨 평양종합인쇄공장의 작업반장 등 비롯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공화국에서는 고급중학교

를 졸업한 대상은 물론 현재 고등교육을 받고있거나 고등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일하는 대상을 비롯하여 나이나 모종 연령, 직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희망하는 대학의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다. 나라의 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동하며 근로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키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는 원격교육체계에 열광하는 단원위 학생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무지개》호